

발품과 땀방울로 써내려간 동학농민군 공주전투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 연구
정선원 지음



“공주전투는 전봉준 휘하의 남접 농민군은 물론이고 충청도와 경기도 및 경상도의 북접 농민군이 대규모로 참전하였고, 공주지역의 토착 동학농민군도 함께 하여 치러낸 전투였다.”

오랫동안 충남 공주지역 중학교 교단에서 역사를 가르쳐온 정선원 전 공주동학연구회장은 기존 '남접(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 농민군) 중심의 전투'로 이해해온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의 통설을 수정해 '남접과 북접, 토착 동학농민군이 연대한 전투'라고 새롭게 밝혀냈다.

동학과 공주전투에 대한 학문적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월광대 대학원(지도교수 박광수)에서 석·박사과정을 밟은 저자는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 연구'(2023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주전투에 대한 선행 연구와 국내외 사료를 꼼꼼하게 살피고 공주지역 동학전투지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구전(口傳)을 채록한 발품과 땀방울의 결정체다.

저자는 총 5부로 나뉘는 1,2부에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군 2차 봉기, 공주전투 배경을 살핀다. 그리고 3, 4, 5부에서 남북접 동학농민군과 조일(朝日)연합군 사이에 22일간(음력 10월 22-11월 14일) 9차례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공주전투를 공간·시간별로 상세하게 규명한다. 공주전투를 크게 1차대치(10월 22일), 1차전투(10월 23-25일), 2차대치(10월 26-11월 7일), 2차전투(11월 8-9일), 3차대치(11월 10-14일)로 구분한다. 공주 동쪽 월성산과 능암산 사이 능터(수월령)를 넘기

위한 1차전투(이인, 효포, 대교, 옥녀봉)와 공주 남쪽 우금티를 목표로 한 2차전투(우금티, 송장배미산자락, 오실산자락, 효포) 상황을 지도와 함께 생생하게 묘사한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남접과 손병희 통령이 이끄는 북접은 1차전투때 효포전투에서 처음으로 회합했으며, 각각 독자성을 유지하며 전투를 수행했다.

저자는 남접과 북접, 토착 농민군이 연대한 공주전투 집결병력을 종래 3만~4만명을 뛰어넘는 10만명으로 추산한다. 무엇보다 10여년 동안 공주 우금티 일대 사방 100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답사해 구전을 채록한 저자의 열정이 돋보인다. 이를 통해 관군과 일본군 기록에 누락돼 공백으로 남아있는 동학군과 지역 주민들 활동상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주민들의 구전에 따르면 '홍나물 동이의 콩나물처럼 뻗뻗이' 우금티 공격에 나선 농민들은 '무르팍으로 내밀어도 나갈 수 있었는데, 주먹만 내질러도 나갈 수 있었는데' 현저한 전력차이로 인해 끝내 고개를 넘을 수 없었다. 후일 일본군은 농민군 항쟁을 '청일전쟁 수행을 집요하게 막아 나선 유격전'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특히 송장배미와 혈저천, 보아티 들판(고개), 하고개 때무덤 등 지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학술지의 흔적은 독자들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부록으로 공주창의의 의병대장 이유상을 비롯해 임기준(이인), 장준환(공주), 김기창(정산) 접주 등 공주지역 농민군 지도자들과 남북접 농민군 관련 자료, 공주전투 관련 일지를 정리해놓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결론에서 "공주전투는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조선 민중에 대한 본격적인 제노사이드 사건이었다"면서 "그동안 우금티전투로 축소되어 인식되었던 공



정읍시 황도현 전적지에 세워진 '불멸-바람길' 조형물. <광주일보DB>

주전투는 역동적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주전투는 동학농민혁명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전 국(戰局)을 좌우할 정도로 장기적이며, 조직적이고 치열한 전투였다. 따라서 공주전투를 '패배한 전투'로 동학농민혁명을 '좌절된 혁명'으로 보았던 종래의 관점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시는사람들·4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수원화성 여행 =정조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혔는지 살펴보는 것은 '수원화성'을 둘러보는 포인트 중 하나다. 그는 영조와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명분을 확보했으며, 온전한 절차를 지켜 신하들이 반박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 스마트한 리더 정조는 건릉제 행사를 벤치마킹해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화성성역의 궤'와 비교해 영조 시대 과학과 통치 체계를 살펴본다. <책읽는고양이·2만1900원>

▲잊혀지지 않을 권리=한 아이가 갈비뼈 여섯 개 부러진 채 집에서 맞아 죽었다. 주변 누구도 아이가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귀가 시간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계모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한 생명이 죽었음에도 5년 정도 수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더 죽지 않게 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고군분투기.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12년간 법정에서 다투은 기록을 모아 그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부각시킨다. <느린서재·1만8500원>

▲거의 모든것을 망친 자본주의=인류 변명은 우리에게 문명과 편의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와 인류 절멸의 위기를 선사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망친 주범을 '자본주의'로 꼽는다. 과거 신대륙 자원을 약탈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부터 제국주의와 상품경제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이후 증기기관을



개선해 산업화를 이끈 제임스 와트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과 환경 파괴가 가속화됐다고 주장한다. <선순환·2만2000원>

▲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지배당하는가? =기득권 세력은 왜 '질문'을 싫어하고 거부할까. 교과서 속에 '성 소수자'라는 말을 빼는 등 이들은 사회 체계에 대해 '반문'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지워내려 한다. 성평등과 성차별 또한 마찬가지다. 독재자들은 늘 포퓰리즘 이면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양산해 왔으나, 이처럼 은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 여러 분야에 펼쳐진 상황에서 도덕 장치가 부재한 순간, 사회적 '선'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철수와영희·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돌머리들=많은 사람들이 '년' 돌머리야 라는 표현으로 인해 돌을 얹어 보곤 하지만, 세상에 우습게 볼 것이 있을까? 돌대가리, 돌팽이 등 사람을 폄하하는 말 속에서 돌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인류 최초의 도구이자 값비싼 보석을 품은 돌은 인류에게 편의성과 깨달음을 선사했다. 돌의 유쾌한 반격을 통해 익숙했던 사물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이야기꽃·1만3000원>

▲마법의 호박=오두막집 한 채에서 같이 살던 가난한 두 가족에게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들은 모두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난을 각기 다른 대조적인 방식으로 대한다. 아니야 아니

씨네 가족은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절망에 빠져 사는 반면, 그레오 그레시 가족은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꿈을 키워간다. <지양어린이·1만4500원>

▲급식실의 달팽이=달팽이를 너무 오래 잔 달팽이 '달팽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깨보니 학교 급식실임을 깨닫는다. 친절한 조리사를 만나 급식실 한 칸에서 지내게 됐지만, 늘 구석 자리에서 밥을 먹는 어린이 '지영이'가 자꾸 신경 쓰인다. 어느 날 달팽이 씨는 지영이의 도움을 받아 급식실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달팽이 앞에는 장애물과 난관이 가득하다. <책읽는곰·1만5000원>

평범한 일상에서 인생에 대한 사유를 끌어낸다

아트·대학살의 신·스페인 연극
아스미나 레자 지음



오랜 우정을 나누어 온 세 친구가 있다. 예술을 사랑하는 피부과 의사 세르주는 몇달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림 한 점을 산다. 그림을 보러 친구 집을 방문한 항공 엔지니어 마르크는 얼핏 보면 그저 텅 빈 하얀 캔버스로 보이는 그림을 무려 20만 프랑을 주고 샀다는 말에 그의 허영심을 질타한다. 그림에서 작은 감동을 받은 또 다른 친구 이방은 중재에 나서 친구들을 화해시키려 하지만 일은 점점 꼬여만 간다.

블랙코미디 연극 '아트'는 '르몽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현대 프랑스 극작"이라고 언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석·권해효·염기준 등 많은 배우들이 거쳐간 인기 레퍼토이다.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인생에 대한 사유를 끌어낸다"는 평을 받는 극작가 아스미나 레자의 대표 희곡작품 '아트', '대학살의 신', '스페인 연극'이 동시

에 출간됐다. '아트'는 세 남자의 우정이 허영과 오만에 의해 무너지고 다시 봉합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블랙코미디다. 더불어 예술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진 세 사람이 작품 한 점을 두고 현대미술의 가치에 대해 벌이는 논쟁을 통해 예술 작품을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각자에게 어떻게 다른가 등에 대한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대학살의 신'은 거창한 제목과 달리 소소한 이야기를 다룬다. 등장인물은 아이들이 싸운 문제로 만나게

된 두 쌍의 부부. 각각 변호사와 자산관리사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레우 부부는 아들 페르디낭을 다치게 한 부류노의 집을 찾아가 레우 부부를 만난다.

두 부부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반에는 서로 관대한 태도로 논의를 시작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차 논쟁적으로 변해가고, 문제의 원인인 폭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며 각자의 '정의'를 주장한다. '스페인 연극'은 연극이라는 장치를 통해 의사소통의 부재와 고독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스페인의 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남편과 헤어진 후 새 애인과 생활하는 엄마, 연극배우로 데뷔하자마자 성공을 거둔 둘째 딸, 동생보다 먼저 배우가 됐지만 변두리 극장을 전전하는 큰 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더불어 극 중의 극인 '스페인 연극'을 연습하는 현장의 맥락을 통해 배우로서의 삶과 연극, 사랑에 대한 성찰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뮤진트리·각권 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www.e-dk.co.kr

래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